



6월 3일
목요일

보도자료



실국	농업정책과	과장	손명도	팀장	차은령	☎	286-6240
----	-------	----	-----	----	-----	---	----------

농촌 일손부족, 지역대학생들이 힘껏 돕겠습니다.

- 전남도, 지역대학총장협, 전남농협과 대학생 농촌봉사 MOU 체결 -
- 광주전남 21개 대학 대학생 참여, 연중 농촌봉사활동 전개 -

전라남도는 2일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대학생 농촌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성현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現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박서홍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 일손 부족이 한층 심화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수요를 일손부족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각 대학, 농협은 ▲대학생의 농촌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 협력 지원체계 구축 ▲대학생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홍보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봉사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 제공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대학생과 농가 연계 등을 협력하게 된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운영중인 도내 35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참여 학생에게 교통편과 간식 제공,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한 봉사 활동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은 지난 5월 21일부터 순천대학교 학생 25명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대학, 300여명이 양파수확 등 봉사활동을 펼친바 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 대학별 학사일정에 맞춰 연중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광주전남 21개 대학교와 농촌의 인력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면서, “코로나 19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6월말까지를 봄철 농번기 일손부족 집중관리기간으로 보고 가용 자원을 총망라한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봉사단체, 대학생, 군부대 인력 등 43천여명의 인력이 일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